

지 상 범 석

정진없으면 늘 중생자리

“먹을때는 먹는 마음
운전할때 핸들움직이는 마음
그대르가 수행이어야합니다”

에 빠지면 그 곳아말로 말법의 구렁텅이가
(화엄경)에 나오는 선재동자도 53선지식을
찾아가며 처음의 서원과 구도심을 여실히
지켰기에 마침내 해탈의 묘음을 들을
수 있었음을 잊지 말도록 합니다.

간을 쓰는 지혜와 함께 물러서지 않는 용
맹심도 중요합니다.
물러서지 않는 곳에서 우리는 수행의 끝
자리를 볼 수 있습니다. 물론 그 끝자리는
해탈 열반의 장엄한 세계이겠지요.

먹을때는 먹는 마음 그대로가 정진이어야
하고 운전할 때는 핸들을 움직이는 그대로
가 수행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.
“나는 지금 수행정진을 하고 있다”라는
생각을 삶의 모든 과정에 불려 놓으십시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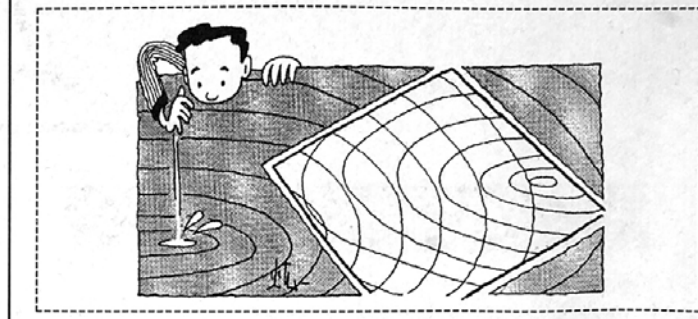
깨달음으로 가는 길 '서원 - 믿음 - 정진 - 성불'
'과연될까' 자신 못믿으면 어떤 닻음도 헛공부

세우긴 했는데 과연 될까'라는 의심이 생기
면 이미 그 공부는 금이 간 겁니다. '나의
이 서원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이고 이뤄
내고 말겠다' 한 단호한 믿음이 있어야 합니
다. 그런 긍정적같은 믿음이 있을때 우리는
업생(業生)에서 원생(願生)으로 현정될 수
있습니다. 업생이란 업에 이끌려가는 삶이
고 원생이란 원력으로 지어가는 삶이니 불
자는 원생의 삶을 창조해내는 힘을 가져야
할 것입니다. 어쨌거나 스스로에 대한 굳은
믿음은 자신의 서원을 흐트리지 않는 힘이
될 것이며 조금도 의심없이 자기를 믿으며
정진하는 불자가 되시기 바랍니다.

행을 한다는 사람들마저 어려운 지경에 달
아 쉽사리 포기하거나 편법을 쓰려 한다면
어느때에 해탈열반의 기쁜 소식을 다시 들
어 보겠습니까.
물러나는 그 자리는 곧 죽음의 자리입니
다. 우주를 채우고 넘치는 용맹심으로 정진
해야 합니다. 정진은 어려운 것입니다. 어렵
기 때문에 해야하는 것이고 그 결과는 시간
도 공간도 훌쩍 뛰어넘은 자리에 빛나게 올
라서는 대자유인입니다. 옛날의 스님들은
그 장한 원력과 신심으로도 모자라 등에 들
을 짊어지고 정진했다고 합니다.

부처님께서 그러하셨
듯이 우리도 어서어서
깨달아 아직 미혹의
몸을 버리지 못한 중
생을 교화 해야 합니
다. 부처도 중생이 있
음으로 해서 부처일
수 있습니다. 모든 중
생이 성불한 곳에서는
부처도 중생도 구별이
없으니 그곳이 바로
극락정토가 아니겠습니까. 우리는 그 극락
정토를 세워 불생불멸의 대자유를 구하기
위해 수행정진하고 깨달음을 얻어 교화를
해야 합니다. 깨달지 못하고는 단 한명의
중생도 구제할 수 없습니다. 자기자신을
구제할 사람이 어떻게 남을 구한단 말입니
까. 그래서 스스로 마음 닦는 일에 게으르
지 말고 정진하라는 것입니다.

찾는 것이 수행정진의 목적이니 것은 당연한
일이 아닌까. 그래서 나는 마음을 청정히
갖추는 일을 하라고 강조합니다.
(화엄경)에서도 '마음이 청정하면 국토
가 청정하다'고 가르치고 있는데 국토가
청정할 그 자리가 바로 극락세계입니다. 마
음을 청정하게 하는 정진을 할때는 누구나
출모 없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. 이일제일
에 깰달려 바쁜 사람은 오묘한 수행의 시
간조차 가질 수 없습니다. 그저 쓸모없이
산비탈에 서 있는 짐목처럼 고조려한 자세
로 수행하라는 말입니다. 요즘은 스스로 쓸
모 있다고 나서는 사람이 너무 많아서 되
는 일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. 그렇게
'내가 최고'라고 사람들 앞에 나서는 사람
은 대부분이 맘지 못한 마음을 가지는 것
같습니다.



고전역학적 우주
관은 바로 인과의
세계를 뜻한다. 불
교적 용어를 빌어
말하자면 인과의 사
슬에 묶여 돌고도는
생사윤회의 세계를
뜻한다. 모든 것이
인연에 의해 꿈쩍할
수 없이 결정
되어 있기에 적극적인 수행도 의미를 잃
는다. 적극적인 수행마저 그렇게 되도록
인연이라 결정되어 있으니 수행을 하지
않은들 인연이 그런걸 본인에게 무슨책
일이 있겠는가. 결정된 과보를 받도록
되어 있는데 누가 어떻게 그 인연과보를
끊을 수 있겠는가. 고전역학의 결정론적
인과율이 절대적이라면 불교가 설 땅은
없다. 실제로 불교가 인도의 서쪽지방,
이란 아랍 그리스등에 알려졌지만 받아
들여지지 않았.

과학속의 불교
불교속의 과학
김성구
반아심경과 물리학 4

빛의 운동 통해 '입자-파동' 이중성 확인
사물의 본질 보는 시각에 큰 변화 가져와

기에 그렇게 존재한다는 것이다. 사실
일상적 경험으로 볼 때는 움계 들린다.
그런데도 불구하고 반아심경은 오온개
공이라고 설했다. 이제 현대물리학의 탄
생과정을 살펴보고 어떻게 물리학자들
이 일상적 경험의 세계를 뛰어 넘는지
반아심경의 내용과 비교하여 보기로 하
자. 사건은 입자-파동의 이중성을 관찰
하므로 시작된다.
사람은 사물을 두가지 대립되는 개념
으로 나누어 보려는 경향이 있다. 실제
와 가상, 유와 무, 선과 악 등인데 물질
세계에서 나타나는 입자와 파동도 이 대
립되는 개념에 속한다. 미리 말해 둘 것
은 현대물리학에서는 입자-파동의 이
중성에서 말하는 파동을 사람이 입자를
발견할 확률을 나타내는 것으로 해석하
여 기이한 세계로 사람을 끌고 가지만
이중성이 논리적 모순을 가져오지 않는
다는 사실이다. 그러나 고전물리학에 길
들여져 있던 물리학자들은 이 파동을 물
질적 파동의 모양으로 존재하는 것으로
해석하여 입자에 대립되는 개념인 물질
파로 보았기에 논리적 모순을 가져왔다.
이중성이란 말도 그래서 생겨난 것이다.
물질파로 해석하여도 자연현상을 설명
하는데 별 지장은 없으므로 먼저 물질파
자-파동의 이중성을 기대할 수 없는
것이다. 호수의 이쪽과 저쪽에서 돌을 던
져 두군데서 물결파를 만들더라도 결국
합쳐서 하나가 되어 간섭현상(Interfere)
라는 현상을 만든다. 입자는 하나, 돌 이
렇게 해서 생각할 수 있는 것이며 하
나와 하나가 모이면 돌이 되는데 반해
파동은 돌이 합쳐 반드시 하나가 되지만
그것의 세기는 두배가 되는 것이 아니라
네배가 되기도 하고 이에 소멸해서 없어
지기도 한다. 입자는 당구공처럼 부딪쳐
서 서로 튕겨내는 것처럼 운동량(運動
量)을 주고 받지만 파동은 운동량을 갖
지 않으므로 물체를 튕겨낼 수 없다.

불치병, 난치병, 조상묘지 상담
복이 될 인연을 만나면 복이 되고,
불행한 인연을 만나면 불행이 온다.
부처님오신날
주요 수록내용
영원한 인류의 스승
석가모니부처님의 탄생
홍비나동산의 큰 광명
누리에 넘치는 기쁨
관불의식의 유래와 공덕
등불공양의 공덕
꺼지지 않는 등불
우리나라의 연등행사
민간의 초파일 풍습
오늘날의 연등공양
부록/초파일 불국찰원문과
불기2500년 부처님오신날 봉축 취경 해설